

2026년 제19기 김포도시농부학교 경작보고서

조/성명	3조 / 황하린	날짜	2026. 06. 04.
날씨	맑음	시간	19:00 ~ 21:00
경작 (강의) 내용	<p>원예학 기초이론 및 식물병해충 관리 서윤경 강사님</p> <p>이번 강의는 원예학 기초이론과 식물병해충 관리라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. 특히 평소 관심이 많았던 식물병해충 관리 방제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.</p> <p>1. 주요 해충별 관리 및 방제 전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깍지벌레류: 밀랍으로 코팅된 외부 층 때문에 약제가 잘 침투하지 못하므로, 고압 분무기로 분홍색 속살이 드러날 때 약을 살포해야 효과적이다. 알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번식하므로 반복적인 방제가 필수이며, 물리적으로 휴지로 눌러 죽이는 방식도 병행하면 좋다. 배설물인 감로로 인한 2차 피해에도 주의해야 한다. - 점박이 응애: 기본적으로 거미류에 해당하여 일반 살충제가 아닌 '살비제'를 사용해야 한다. 잎 뒷면에 서식하며 미세한 거미줄을 치고 엽록소를 흡즙해 반점을 만든다.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성충이 되면 솜털로 쌓여 약제가 잘 들지 않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. - 차면지응애: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응애로, 일반적인 세척으로는 제거가 어렵고 옆채류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. - 꽃노랑총채벌레: 잎에 스크래치를 내어 기형을 유발한다. 성충은 표피가 두툼한 갑옷 형태로 되어 있어 방제가 까다롭다. - 작은뿌리파리: 유충인 구더기가 뿌리를 갉아먹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. 관주법(흙에 직접 약제를 붓는 방식)을 통해 성충을 방제해야 한다. 온실가루이: 잎 뒷면에서 즙액을 흡즙하며 피해를 준다. - 진딧물류: 처녀생식으로 번식하여 '번식의 여왕'이라 불릴 만큼 증식력이 뛰어나다. <p>2. 농약 살포 및 관리 원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용법 준수: 농약을 고농도로 살포할 경우 작물에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. 따라서 규정된 농도로 희석하되, 살포 빈도를 높여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- 약제 구분: 화학농약과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중 작물의 상태와 상황에 적합한 약제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. 		

사진

